

“준비는 없고 요구만”…정책·비전 빠진 타운홀 미팅

시·도지사 구체적 전략 제시 없어
군공항 이전 등 민원성 요구 치중
李대통령, 진전 없는 논의 아쉬움
“정책 설계 없는 요구 민원 불과”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등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시도지사 등 단체장 등이 구체적 전략 없이 민원성 요구만 쏟아냈다는 지적이 나오며 ‘준비 안된 회의’라는 혹평이 뒤따랐다.

이번 타운홀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호남 방문으로, 광주·전남이 중앙정부에 지역 발전 구상을 제안할 수 있는 자리였다. 그러나 광역·기초단체장과 시민 발원자 대부분이 군공항 이전, KTX 증편, 기업 유치 등 지역 현안 해결 요청에만 치중해 ‘맹탕 토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광주시와 전남도는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등 전략산업 지원을 요청했지만 건의 내용이 국가산단 조성 일색이고, 구체성이 결여돼 지역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공감과 지원을 끌어낼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빛그린 산단(100만평), 미래차 국가산단(102만평)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광주광역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광주군공항 및 호남권 발전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광주전남사진기자단**

등 총 300만평 규모의 AI 모빌리티 신도시(에이모시티) 조성 계획을 밝혔다. 또 이미 완료된 AI 집적단지 조성에 이은 2단계 사업의 예비타당성 면제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 조성 상황을 소개하고 무안 북부지역 국가산단 조성, 순천·광양 등 전남 동부권 마래 첨단 산단 조성 등을 건의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전략과 지

원 요구 사항을 거듭 주문했으나 청중이 주목할만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뭘 해주면 되느냐”, “실효적 조치를 얘기해달라”며 진척되지 않는 논의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강기정 시장은 “무안으로의 공항 이전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의 ‘국가 주도·대통령

령 책임·무안 보상’ 등 3대 원칙을 언급, 1조원 규모 추가 지원과 무안공항 KTX 연계 계획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무안군에 대한 설득 논리나 실행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김영록 지사는 광주·전남 상생 필요성, 여론 변화 등을 언급했지만 중재자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무안이 독립 지자체처럼 행동해 난감하다”며 “무안군민 설득을 위한 국가지원이 필요하다”고 토로했지만 적극적인 해법은

내놓지 못했다.

광주시에 대해 강한 불신을 표출한 김산 무안군수는 “광주시가 2018년 체결된 민간 공항 이전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이미 신뢰가 깨졌다. 1조원 지원과 기부 대 양여 방식을 믿기 힘들다. 김 지사도 광주시 편을 드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시민 발원자 중에는 신동엽 씨가 “사법고시를 부활시켜달라”고 요청했고 김유진 12·29 무안공항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특별법 시행령이 근로자 유가족에만 치유 휴직을 보장한다”며 전 국민 대상으로의 확대를 요구했다. 그러나 대부분 발언은 반복적이거나 민원성 제안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생각이 다르다고 적대하면 안 된다. 정책 설계 없는 싸움 문화는 바뀌어야 한다”며 “지역균형발전은 수도권 집중을 푸는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에서는 이날 타운홀 미팅이 지자체의 준비 부족과 중앙정부와의 온도차만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정관계자는 “대통령과의 만남이라는 무게감을 고려할 때 전략적 준비가 매우 부족해 아쉬움이 컸다. 국가 개입을 요청하면서도 ‘어떻게’, ‘얼마나’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며 “전략과 정책 설계 없는 요구는 민원에 불과하다. 광주·전남이 상생하려면 정책 설계와 실행 전략이 구체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현 기자**

李 “사회적 편견 없어야”… 현직 대통령 최초 소록도병원 방문

김혜경 여사와 함께 한센인 위로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전라남도 고흥군 국립 소록도병원을 방문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혜경 여사와 함께 소록도병원을 찾아 병원 관계자들과 한센인 원생들을 만났다.

이 대통령은 고통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애쓴 한센인들의 의지를 높게 평가했고, 국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약자들을 보살핀 종교인·의료인들의 숭고한 희생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5일 고흥군 국립소록도병원에서 관계자와 한센인 원생 자치회를 만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연합뉴스**

헌신을 치하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방문은 대선 기간이

던 지난달 27일 김 여사가 소록도를 방문해 “선거가 끝나면 대통령을 모시고 꼭 다

시 오겠다”고 말한 것을 지킨 것이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을 듣고 꼭 와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며 “시설이 오래됐는데 필요한 것이 많지 않느냐”고 의료진과 주민들의 고충을 물었다.

이에 병원 측은 김혜경 여사의 약속이 지켜진 것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병원 관계자들이 이 대통령의 저서인 ‘이재명의 굵은 팔’을 내밀며 서명을 청하자, 이 대통령이 흔쾌히 서명과 사진 촬영에 응하기도 했다.

소록도병원 오동찬 의료부장은 “비가 새는 별관 지붕이 걱정이었었는데, 이번 2차 추경에 노후시설 보수 공사 비용이 편성돼 매우 감사드립니다”며 “(지난 대선 기

간) 김 여사가 먼 길을 찾아와 낮고 어두운 곳을 살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센병은 1950년대 처음 치료제가 개발됐고, 한국은 1980년대에 한국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 한센병 퇴치 목표에 도달했음에도 여전히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도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에 자행된 강제격리와 출산금지 등 차별과 고통의 역사를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 부부는 환우들의 손을 잡고 위로하며 사회적인 편견이 없어야 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들은 말씀들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지 깊이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그린  알로에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물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